

공동체 소식

주님 봉헌 축일

-주님 봉헌 축일은 주님의 성탄과 공현을 마무리 짓는 축일입니다. 전례주년에서 성탄시기는 주님 공현 대축일 다음인 주님 세례 축일로 공식적으로 마감하지만, 주님 봉헌 축일은 성탄 축일과 연결된 축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쓸 초를 축복하고 또 봉헌합니다. 완전한 봉헌은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결과물이나 몫을 드립니다. 초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성전에 봉헌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일치하여 나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시메온이 주님을 만나 함께했듯이, 봉헌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시메온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봉헌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주님을 찾아 만나고 함께 하는 기쁨으로 주님의 봉헌에 동참하여 나 자신을 봉헌하도록 합니다. **(초봉헌 : \$5)**

2020 신앙여정 점검표

-2020 신앙여정 점검표를 드립니다. **개인별로 1년동안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생활, 기도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체크하여 보다 개선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교구대회를 통해 준비된 본당 계획으로 신앙여정 점검표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전례부회의

-2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독서자 모집합니다.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모집

-2020학년도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원서접수 마감 : **2020.02.07(금)**
-포스터 및 리플렛 참조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매월 둘째 토요일에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일시 : 2월 8일(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135th TurnStyles Thrift Store
-2월 2일까지 봉사부장에게 신청

교무금 계좌이체

-교무금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재무부장(차장)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반모임

1구역 08일(토) 저녁7시 김화년 요안나 가정
3구역 21일(금) 저녁 7시 박희영 카타리나 가정
4구역1반 22일(토) 저녁 7시 이우영 가브리엘 가정
4구역2반
구역/반장 모임 23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전례 상식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가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예절서 72항 참조).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제의 제작 지원 감사

-본당 제의 제작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62	210	154	34
차 주	421	166	501	437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콜라스티카
차 주	박태주 로마노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미사 복사

	시종복사 1	시종복사 2
금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민서 임마누엘	김하울 루카 김가운 토마스
차 주	김정원 안젤라 김정빈 바오로	차한나 가브리엘라 강윤후 그레고리오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 라파엘,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김동술 요한

애찬 봉사자

금 주	조지연, 박정자, 김경돌, 정연숙, 이경남
차 주	최은미, 장보혜, 조경희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한인성당

복자 정약중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kc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오늘의 전례

2월의 첫 주일인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합시다. 우리 각자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각별한 봉헌의 삶을 선택한 수도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자신의 소명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림 묵상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루카 2,23)

예수님의 봉헌은 하느님 백성을 위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탄생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신 마지막 봉헌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말라키, 3,1-4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화 답 송 :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제 2 독 서 : 히브리 2,14-18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 음 : 루카 2,22-40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

결국, 우리는 봉헌되는 사람



'주님 봉헌 축일'을 지내는 오늘은 '봉헌 생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1997년부터 지내기 시작한 이 날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자신을 주님께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주님 봉헌'과 '수도자의 봉헌! 넓은 의미로 생각할 때, '봉헌'에 관한 비슷한 개념이라 '주님 봉헌'에서 '봉헌 생활의 날'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묵상 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 봉헌'은 주님께서 자신을 봉헌했던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 봉헌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봉헌'은 요셉과 마리아가 절차 없이 예수님을 봉헌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레위기(12,1-8)에 있는 정결례 규정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는 아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쳤습니다. 또한 '주님 봉헌'을 위한 여정은 산모였던 마리아와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이 요셉의 인도에 따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에서부터 150km나 떨어진 먼 길을 걸어간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 봉헌'은 주님이 양부모에 의해 봉헌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와 함께 수도자들은 주님의 모범에 따라 자신이 잘 봉헌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수도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나를 주님께 봉헌

했다'는 생각에 무척 우쭐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넘기면서 점차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삶에도 무게가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수도자로 10년, 20년 살다 보니, 무게감 때문에 힘들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나를 봉헌하기에도 버거운 수도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봉헌'이라는 말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라는 사실을. 또한 수도자는 자신을 봉헌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 봉헌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기 예수님이 부모에 의해 봉헌되듯, 우리 또한 공동생활 안에서 형제들에 의해 봉헌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생활이란 결국 공동체가 형제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나를 잘 봉헌할 수 있도록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나를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무게를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삶의 힘을 빼고, 마음의 무게를 줄였더니,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필요 이상의 긴장감도 줄어들고, 사도직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봉헌 생활'은 결국 '나 중심의 무게'를 줄이고,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봉헌되는 사람답게 잘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비둘기 한 쌍의 속죄 봉헌물을 하느님께 바쳐줄 것입니다. 아멘.

강석진 요셉 신부 | 한국순교자성직수도회

번 확인하면서, 그것이 이뤄지기를 기원하고자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와 신자들은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아멘'으로 끝을 맺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도 '아멘'은 자주 등장한다. 구약성경에서는 주로 하느님에 뜻에 따라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를 확인할 때,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표현할 때, 영광송 혹은 찬미가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을 사용했다. 신약성경에서도 신앙 고백, 기도 응답할 때나, 기도와 찬양의 끝을 맺을 때 사용하는 등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의 일환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독특한 쓰임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가 사용하는 '아멘'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주로 번역되는데, 이 '아멘'은 말씀의 진실성을 확인시켜 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아멘.' 짧은 말이지만 전례와 기도 중에 기도 내용에 마음을 다해 동의하며, 그 내용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신앙의 표현이다. 우리는 혹시 습관적으로 '아멘'을 읊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제부터는 '아멘'이라고 말할 때마다 '아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가톨릭신문

생활 속 영성 이야기

기다리고 존중하는 사랑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처럼 사춘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로서 사랑에 대한 도전이다. 과연 이렇게 해도 사랑해줄지 아이는 끊임없이 화두를 던진다. 품기 어려운 존재를 품는 것, 사랑은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다

간만에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밥을 먹게 되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달려와 안기는 둘째, 셋째와 달리, 사춘기 첫째는 식탁에서 서로 마주할 때까지 무뚝뚝했다. 얼마 전 학원을 고급반으로 옮긴 터라 숙제가 많아졌는데, 밤늦게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말을 꺼냈다. 숙제가 많지 않은지, 할 만한지, 잠이 적어 피곤하지 않은지. 그러다가 휴대전화 사용을 더 줄이고 숙제에 더 집중했으면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번졌다. 이전까지 최소한의 고개 고덕임과 '어, 아니'라는 말로 의사소통을 하던 첫째는 아무 말이 없어졌고, 급기야 남은 밥을 한입에 쑤셔 넣고 자리를 떠버렸다. 자기는 공부 못하는 아이가 돼도 괜찮다는 말을 남기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속이 상했다. 가족들과 즐겁게 식사하려는 순수한 마음과 아이에 대한 걱정과 관심에서 시작된 저녁 식사 대화였는데, 그것을 몰라주고 매몰차게 거부당한 것이 야속했다. 맨날 늦게 자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친구들과 문자 좀 줄이고 숙제에 집중하면 더 일찍 잠자리에 들 것 같아 꺼낸 이야기였는데, 아빠의 진심이 거절당했다.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 연민 때문에 시작된 저녁식사 대화는 아이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로 끝이 났다. 하느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거치더니 급기야 미움과 분노 같은 악마의 마음으로 종결되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앞에 내 하루를 성찰하면서 나를 사로잡았던 그 일에 집중하여 내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았다.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음을 보게 되었다. 아이가 왜 늦게까지 친구들과 문자를 하는지 이해하지 않은 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니까 그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먼저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나의 행동에 아이는 아이대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큰애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미안함이 올라왔다..

하느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데, 나는 사랑하는 아이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주고 강요하려는 마음이 컸다.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사랑에는 무엇보다 기다림과 존중, 적절한 거리

두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아울러 사랑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더 주는 것이라기보다 상대에 대한 내 욕심을 더는 것임도 느끼게 되었다.



사춘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나에게 부모로서 사랑에 대한 도전이다. 이전까지는 베푸는 사랑을 온전히 수용해 주는 아이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해도 과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 줄지 끊임없이 화두를 던지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랑도 품기 어려운 존재를 가슴으로 품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다. 사춘기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도 근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사랑을 담금질하고 순도를 높여가도록 하느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 시간으로 다가온다.

사랑이 많은 하느님이라 해도 인간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하질까. 그러지 않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칼에 단죄하지 않으시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인간에게 상처받고 버림받는 체험을 하시면서도 당신의 사랑과 연민을 멈추지 않으시고 기다림과 존중의 마음으로 인간들을 계속 품고 가신다. 당신 자신이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도 아이를 키우는 것을 통해 내 사랑을 조금이나마 배워갔으면 한다고 하시는 것 같다.

'선인장'(에피톤 프로젝트)이라는 노래가 문득 떠올랐다. "물은 모자란 듯하게만 주고/ 차가운 모습에 무심해 보이고/ 가시가 돋아서 어둡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앞으로 아이에 대한 걱정과 개입은 좀 더 줄이고, 아이를 더 이해하고자 애쓰고, 아이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더 가지도록 애써야겠다. 그러면 내 마음도 한결 더 편해지고, 아이도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한준 요셉 | 한국CLC 교육기획팀장

이 말이 궁금해요

아멘(Amen)

- 주로 기도를 마칠 때 사용하는 단어로, 기도에 동의하며 주님 앞에서 신앙을 확인하는 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바칠 때 늘 '아멘'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는다. 대부분의 기도가 '아멘'이라는 말로 끝나기에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기도가 끝나지 않은 듯한 기분마저 든다. 또 미사 중에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사제의 말에 "아멘"이라고 외치고, 응답한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럴 것입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정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주로 회당에서 능동적으로 동의함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사용했다.

이런 유대인들의 습관을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따랐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문구, 기도, 성가, 신경 등의 끝에 동의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했다. 앞서 기도한 내용을 다시 한